

6. 인삼생육의 최적광량 구명에 관한 연구

(한국인삼, 연조연구소) (충남농대)

이종철*, 천성기 · 박훈 · 이종화 · 안수봉

인삼생육의 최적광량을 구명하기 위하여 자연광의 5% (관함) 10, 20, 30%가 되도록 일복을 조절하여 인삼의 지상부 생육, 근수량 및 인삼성분 함량의 변이를 조사하였다.

1. 지상부 생육은 수광량이 많을수록 왜소화 되었다.
2. 포장광합성량은 20% > 10% > 30% > 5% 투광량구 순이었다.
3. 근수량은 20% 수광량구까지 수광량이 많을수록 직선적으로 증가되었다.
4. saponin 함량은 20% 수광량구에서 제일 많았다.

7. 벼浸水被害에 관한 研究 第2報, 浸水가 벼稔実比率 低下에 미치는 影響

(木浦大学) 崔 相 鎮

벼의 生殖 生長期 以後 浸水에 의한 稔実障害가 어느時期에 어느程度로 나타나는가를 보기 위하여 4品種에 對하여 生育時期, 浸水日數 및 濁度別로 처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1. 出穗前 7-33日 사이에 浸水된것은 4~5日間 浸水에서만 약간 稔実率의 差異가 있었으며 出穗別 2~4日과 出穗期 浸水는

稔実率의 低下가 甚하였다. 그중 出穗期에 더욱 甚하였다.

2. 圃場狀態의 出穗期에 있는것 중에는 出穗直前의 이삭이 이미 出穗된것 보다 稔実率의 低下가 컸고 穗孕期에서는 初期보다 末期의 個體가 더욱 甚하였다.

3. 稔実率 低下는 出穗前 1~3日에서 가장 甚하였고 日數가 멀어지면서 稔実率은 增加하였다. 또 出穗後에는 아직 開花되지 않은것(米粒)에서 稔実率이 가장 낮았고 시간이 經過하면서 增加하였다.

4. 물속에 粘土含量이 많을수록 穗孕期나 出穗期에 稔実率의 低下가 甚하였고 植物體와 이삭에 나타나는 被霏가 증가하였다.

8. 벼 浸水被害에 관한 研究

第1報 浸水가 벼 生育遲延에 미치는 影響

(木浦大學) 崔 相 鎮

浸水에 의한 벼의 生育障害가 어떤 形態로 나타나는 가를 보기 위하여 벼品種 4個, 浸水期間 1~5日 및 浸水時期 4로 구분하여 移秧後 30日부터 清水에 浸水處理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1. 草長伸張: 浸水期間이 길어짐에 따라 草長伸張量이 적어졌는데 處理後 時間의 經過에 따라 密陽 30號와 密陽 42號는 계속 伸張하였으나 도봉벼와 관악벼는 3日以上の 浸水에서 葉이 枯死하였다.